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민관협의체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2019년 제3차 회의 자료

2019. 8. 23.

행정안전부

목 차

Ⅰ. 2019년 제3차 회의 개요 ····· 1

Ⅱ. [안건1] OGP 의장국 활동 방향 ····· 5

1-1. OGP 의장국 선출 결과 ····· 7

1-2. 비전선언문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 9

Ⅲ. [안건2] 워킹그룹 운영 현황 ····· 19

Ⅳ. [안건3] OGP 글로벌서밋 참석 결과 ····· 25

[참고1]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개요 ····· 33

[참고2] 우리정부의 OGP 활동 현황 ····· 35

[참고3] 포럼 운영 활성화 방안 (의결 완료) ····· 36

[참고4] 2019년 활동 계획 ····· 39

[참고5] 포럼 운영위원회 구성 ····· 40

[참고6] 포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41

[참고7] OGP 사무총장 및 운영위원회 ····· 43

I

2019년 제3차 회의 개요

1. 2019년 제3차 회의 개요

□ 개 요

○ (일 시) ’19. 8. 23.(금) 11:00-13:00(오찬 포함)

○ (장 소) 행정안전부 별관(세종시 한누리대로) 대회의실 804호

※ 오찬은 중식당 초향각(세종시 장군면)에서 포럼 위원 대상 개최

○ (참석자) 열린 정부 구현 활동을 하는 정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 행정안전부(정부 측 공동위원장) 및 열린 정부 관련 기관
- 사단법인 코드(민간 측 공동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 청년현장학교 워킹그룹 참여 대학생 40여명, 참관 후 브라운백 미팅 별도 개최

■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Open Government Forum Korea) 개요

- (출범) 2017. 8월, 대한민국OGP포럼으로 출범(정부위원 재구성을 통한 개편)
- (기능) 열린 정부 가치 확산 및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의 국내 활동 주도
- (구성) 열린 정부를 추진하는 중앙부처,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학회로 구성
- (역할) ① 시민사회의 정책 제안에 대한 전문적 심의 및 민관협력 방안 모색
  ② 2개년 국가실행계획 수립, 이행 점검, 평가에 관한 상황
- (운영방법) 분기별 1회 전체회의,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 수시

□ 안건 및 세부 계획

(주재: 민간위원장, 사회: 담당 사무관)

시 간		일 정	비 고
11:00-11:05	5’	인사말씀	공동위원장
11:05-11:35	30’	**(안건1) OGP 의장국 활동 방향** - OGP 의장국 선출 결과 - 비전선언문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안건)**	정부간사 발표
11:35-11:45	10’	**(안건2) 워킹그룹 운영 현황** - 청년현장학교 워킹그룹 - 정부혁신국민포럼 크라우드소싱 워킹그룹	워킹그룹 운영 민간위원 발표
11:45-11:50	5’	**(안건3) OGP 글로벌서밋 참석 결과**	정부·민간간사 발표
11:50-12:00	10’	열린 정부 행사 공유 및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2:00-13:00	60’	오찬	참석자 전원

□ 참석자 명단

구분	위원(기관·단체)명	관련 내용	참석자
정부 위원 (7)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OGP 주무부처(총괄), 공공데이터 개방 등 투명성 제고, 국민 참여 활성화 정책 이행	이재영 실장 (정부위원장 대행)
			배일권 혁신기획과장 (정부간사)
			이명진 사무관
			이유진 사무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를 활용한 거버넌스 증진	박진희 정보화기획과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방지를 통한 반부패 활동	임윤주 부패방지국장
	기획재정부	참여예산 등 국민 참여 활성화	박경찬 참여예산과장
	인사혁신처	열린 정부를 위한 공직 인사혁신 활성화	박행열 인사혁신기획과장
	서울특별시	서울 혁신업무 총괄 OGP 지방정부 프로그램 참여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불참)
	한국정보화진흥원	OGP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 전문기관	박원재 본부장
			신신애 팀장
			이용건 수석
민간 위원 (11)	사단법인 코드	오픈데이터 등 디지털 커먼즈 확산	윤종수 이사장 (민간위원장)
			오원석 이사
	사단법인 오픈넷	인터넷 표현의 자유,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증진	박지환 변호사 (민간간사)
			최지연 변호사(옵서버)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국내 국제개발협력(ODA) 활동	김민영 과장
	알권리연구소	알권리 증진을 위한 여론 조성	전진한 소장(불참)
	정보화사회실천연합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	손영준 대표
	정의연대	부정부패 감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제공	양건모 이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시민역량 강화, 알권리 침해 대응	강성국 사무국장(불참)
	한국자치행정학회	지방행정 정책 개발	정상현 교수
	한국투명성기구	반부패, 투명성 활동	이상학 상임이사(불참)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 공정사회 조성 활동	박준우 사무처장
	행정개혁시민연합	정부개혁과제 모니터링, 민주시민교육사업	박수정 사무총장
			김택호 팀장
OGP	독립연구기관(IRM)	제4차 국가실행계획 평가	황성수 교수
학계	KDI	OGP 의장국 비전선언문 작성	이태준 교수

Ⅱ

(안건1) OGP 의장국 활동 방향

2. [안건1] OGP 의장국 활동 방향

1-1. OGP 의장국 선출 결과 대외유의 [정부간사 발표]

□ 배 경

○ OGP에 가입('11년)해 최고의사결정기구 운영위원회에 진출('17년)

○ OGP 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차기 의장국 진출 의향을 표명

□ 선출 결과

○ **우리나라가 차기 OGP 의장국으로 선출** (임기: '19.10월~'21.9월)

- 운영위원국에서 의장국으로 격상
- 같이 선출된 차기 시민사회의장*과 함께 '19.10월~'20.9월 부의장국, '20.10월~'21.9월 의장국 역할 수행

□ 추진 경과

○ (6.26.) 장관님 명의 의장국 **진출의향서 제출**

○ (7.30.) 의장단 검토회의 개최 및 **우리나라 최종 승인**

○ (8.1.) **OGP 공식 서한 및 결의안 접수**

* 차기 시민사회의장		
사진	성명/직위	주요 이력
	마리아 바론 (Maria Baron)	■ 아르헨티나 Directorio Legislativo 이사 ■ 라틴아메리카 네트워크(Latin America Network) 설립 ■ UNDP 시민사회 자문위원 ■ 아르헨티나 출생, 워싱턴 DC 거주 ※ 2018 OGP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18.11.5-6) 참석차 방한

□ 향후 계획

○ 공식 발표(8.28, 수요일)

○ 비전선언문* 마련(8월), OGP에 제출 및 회원국 회람(9월초)

*시민사회의장과 공동비전(초안)으로 수립, '20.10월 의장단 승격 시 최종 비전 발표

○ OGP 사무총장 방한 및 장관님 양자회담(12월초 예정)

□ 의장국 주요 역할 (2020.10월 이후)

① 운영위원회(정부위원 11, 시민사회위원 11) 장관회의 주재(연1회)

② OGP 총회 성격의 '글로벌서밋' 개최

○ 운영위원회 실무회의 주재(연3회)

○ 거버넌스리더십소위원회 월간회의 주재

○ 안건별 검토 및 입장 표명 예) OGP 탈퇴희망국, 비활성국 발생 등

○ 전략 수립 자문 예) '19.5월 운영위에서 승인한 OGP 지방정부 전략 수립

○ 고위급 회의 시, 외교채널을 활용한 회원국 고위급 인사 참석 확보
예) UN총회, 의장단 인수인계 행사, OGP 글로벌서밋 등

○ OGP 회원국의 재정의무 준수 독려

○ OGP의 국제적 확산, 가입 권유, 비활성국 지원 등

※ 관련 조치사항

○ 국·과장급 1명을 실무회의 주재자로 지정

○ OGP 글로벌서밋 개최 시, 행사 기획·진행을 위한 담당조직 구성

□ 2019-20년 주요 일정

날짜	내용
8.1.(목)	OGP 의장국 선출에 관한 공식 서한 발송
8월	의장국 활동 계획 수립 및 의장단 공동비전 초안(Early Vision) 마련
9.4.(수)-6.(금)	차기 의장단 비전선언문 공표
12월초	**의장국 준비를 위한 OGP 사무국, 시민사회의장 방한** **※ 장관님 양자회담**
2020년 2월중	OGP 운영위원회 실무회의(장소 미정)
2020년 9월	UN 총회 계기 인수인계 회의 및 OGP 운영위원회 장관회의(뉴욕) **※ 장관님 참석**
2020년 10월	의장국 임기 개시

1-2. 비전선언문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정부간사 발표, 보완중

1. 우선 과제

◇ 참여 민주주의의 활성화
Promoting Participatory Democracy at All Levels

- 시민영역 확장을 위한 국민 참여 플랫폼 운영 경험 공유
- 공동체 참여가 심화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 추진

◇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공공의 가치 구현
Pursuing Public Values towards an Inclusive State

- OGP 회원국의 공공가치 창출사례 발굴, 동료학습, 역량강화 지원
- UN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연계를 통한 공익의 플랫폼으로 발전

◇ 정부혁신을 통한 신뢰 제고
Renew Trust through Government Innovation

- 국가실행계획 내 혁신 공약 수립 지원
- 데이터 활용 문제해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강화 플랫폼으로 발전

2. 국제적 리더십

◇ OGP 출범 10주년 맞이해 향후 10년을 이끌 비전 공동 수립

◇ OECD 등 파트너 기관과의 열린 정부 구현 활동 연계

◇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열린 정부 구현 노력 확대

3. 국내 활동

◇ 열린 정부 가치를 확산하는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활동

◇ 국가실행계획 수립 시 야심찬 공약 마련

◇ 정부혁신 추진을 통한 범정부 열린 정부 활동 내실화

4. 대외 협업

◇ 대통령실, 외교부 등과의 협업을 통한 OGP 의장국 활동 추진

◇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정부기관의 OGP 활동 참여 확대

1. (우선과제) 의장국 임기 중 OGP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고자 하는 우선과제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열린 정부 활동을 주도하는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을 2020-21년 동안 이끌 의장국으로 선출되었다. 2011년 UN 총회에서 씨앗을 틔워 8개 국가로 출발한 OGP는 이제 79개국, 20개 지방정부, 수천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고, 3천 개가 넘는 공약을 수립해 이행하는 국제협의체로 성장했다. 곧 출범 10년을 맞이하는 OGP는 그동안 국제사회 내 열린 정부의 현주소를 짚어주고, 앞으로 갈 길을 비춰주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2021-21년 OGP를 대표하는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는 2019-20년 의장국 아르헨티나 정부와 시민사회 의장 로빈 호데스(Robin Hodess) 의 활동을 지원하고, 임기 2년 동안 시민사회 의장 마리아 바론(Maria Baron)과 함께 투명성 증진,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ICT 활용에 기여할 것이다.

OGP는 그동안 시민영역 축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하락, 디지털 기술 조작 등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그에 대항하는 협의체(a countervailing force)로서 자리매김 해왔다. 이러한 국제적 도전과제에 대해 OGP 운영위원회는 공동 리더십을 촉구하는 'OGP 운영위원회 행동지침[1]'을 승인했다.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서의 열린 정부는 다른 국제 파트너 기관에서도 접할 수 있다. OECD는 열린 정부에 관한 이사회 권고문[2]에서 열린 정부를 신뢰 구축의 주요한 방법으로 소개하고, 국제투명성기구 2020 전략[3]은 정부가 열린 정부를 구현할 때 교육, 보건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더 높다고 설명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마주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리더십(collective leadership)을 발휘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OGP

1) OGP (2019), OGP Steering Committee Call to Action: Collective Leadership to Protect Participation, Advance Inclusion, and Create Impact for Digital Democracy
2) OECD (2017),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Open Government, http://acts.oecd.org
3)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5), Together Against Corruption – Transparency International Strategy 2020, https://issuu.com/transparencyinternational/docs/togetheragainstcorruption_strategy2/6

와 국제사회의 열린 정부 활동을 이끌 의장국으로서 2020-21년 OGP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3가지 우선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1. 참여 민주주의의 활성화

Promoting Participatory Democracy at all Levels

시민참여는 열린 정부를 구현하고, 민주주의와 포용적 성장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 혁신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형성하는 핵심요소이다. 정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공문제들이 전례 없이 부상하고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가하는 사회, 경제, 환경 이슈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은 정부와 국민 간의 쌍방향 대칭적 소통과 상호 지향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적 거버넌스다. 그리고 플랫폼 정부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정부와 민간의 공공가치 공동창조(public value co-creation)다. 따라서 시민참여가 사회·지역문제 해결의 기반을 구축하고 공공문제 해결의 역량과 효과성을 증대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과제에 역점을 둘 것이다.

-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정책과정 상에서 활용 가능한 시민참여 제도의 과학화와 서비스 고도화에 앞장설 것이며 OGP 회원국과 협력을 통해 등대사례(lighthouse case)를 개발, 공유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촛불혁명으로 이루어진 민주주의와 시민성을 정책과정 상에 의미 있는 정책 인텔리전스로 구현하고, 정부와 시민의 공유지식으로 숙성시키는 국민 참여 플랫폼의 운영 노하우와 서비스 체계에 대한 경험을 세계 여러 나라와 공유하고 각 국가의 정책 환경에 맞게 컨설팅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전환 시대에 맞춰 디지털 거버넌스 생태계에 있어서도 효과와 효율의 원리를 고취시키고 예견적 거버넌스(anticipatory governance)의 확장성을 고려함으로써 정부의 대응력, 시민사회화의 지속적인 교감과 소통,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민첩성 등에 혁신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 나갈 것이다.
- 정책과정 상에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제도로서의 시민참여 거버넌스와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과 접점이 많은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추진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OGP 지방정부 참여를 위한 전략(OGP Local Strategy)' 수립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통합형 정부(whole of government) 정신을 강화하여 중앙-지방정부 간 전략적 민첩성(strategic agility)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공공의 가치 구현

Pursuing Public Values towards an Inclusive State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적 가치창출과 더불어 국정운영 방식을 사회의 재생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인권·노동권·안전·사회적 약자 배려·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을 위해 정부운영 기반을 혁신하는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대한민국은 OGP 회원국이 열린 정부를 통해 공공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분야별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동료학습과 역량 강화를 추진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데이터 기반 정책설계와 수요자 맞춤형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정부와 시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공동체의 문제해결을 촉진하고 이로부터 공공서비스 창출과 성숙한 혁신생태계가 구현되는 등대사례 개발과 발굴에 앞장 설 것이다.
- 한편 포용적 사회와 사회적 자본의 증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정 계층이나 사회적 집단의 디지털 기술을 독점하고 활용하지 않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공공과 민간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정부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시민들이 철학, 가치, 행태, 라이프스타일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
- UN 지속가능개발목표 16[4] 평화, 정의, 제도(Peace, Justice, Strong Institution)에 관한 OGP 회원국의 공약을 연계하여 OGP가 국제사회의 공익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정부의 비전, 역할, 전문성, 세부 서비스 등을 총괄하는 정책 프레임워크와 성과평가 모델을 구성하며, 이의 제도적 착근과 성숙도를 배양해 나갈 것이다.

4) UN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sustainable-development-goals/

3. 정부혁신을 통한 신뢰 제고

Renewing Trust through Government Innovation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Government Innovation Strategy)'를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정부혁신은 공동체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며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범정부 계획이다. 대한민국의 범정부적 혁신 노력이 국제사회에 확산되어 열린 정부 노력에 기여하고, 모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 대한민국 정부는 OGP 회원국이 혁신적 노력을 시작·지속·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실행계획 내 혁신 공약 수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아울러, OGP 독립연구기관의 평가를 통해 회원국의 성과 관리의 고도화와 더불어 더 나은 정책 설계로 이어질 수 있는 환류체계를 데이터 기반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디지털 전환이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고 사회경제의 혁신을 수반하게 될 것을 고려하여, 앞으로 정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설계와 시의적절한 성과 모니터링·평가의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운용에 대한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이는 곧 정부신뢰의 매우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인 정부의 전문성(reliability)과 대응성(responsiveness)을 시민들에게 사회적 증거로 제시하는 체감형 정책형성과 성과관리의 핵심축이 될 것이며, 동시에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가짜뉴스(fake news), 허위정보(disinformation), 혐오발언(hate speech) 등과 같이 민주주의와 시민성을 해치는 문제들을 예방하거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공공 플랫폼 자산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OGP 회원국은 단순히 데이터를 공개, 개방하는 일방향적인 전달체계에서 벗어나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공공 빅데이터를 구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는 민주적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플랫폼으로 변혁시키는 작업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데이터, 정보, 미디어, 디지털, 테크놀로지 리터러시와 역량을 전 사회구성원들에게 맞춤형으로 개발, 적용함으로써 열린 정부의 투명성, 책무성, 참여의 공공가치가 데이터 기반 디지털 생태계에서 보존되고 극대화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열린 정부 자체가 최종 목적(an end)이 아닌,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방법(a means)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OGP와 회원국의 성과를 발굴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공공-민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고도화하는데 도전할 것이다. 역대 의장국의 활동 덕분에 열린 정부는 지금까지 열린 정부의 철학과 개념, 정책적 틀과 세부 프로그램을 구축하였고, 다양한 정책분야의 투명성, 반부패, 시민참여를 주도해왔다. 그 제도적 유산과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OGP가 미래사회 국가, 지역,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 국제기구 등을 크게 포용하는 열린 정부의 용광로가 되고, 개념적 추상성과 이상적 담론에서 갇히지 않고 정책 인텔리전스와 실행력을 공유하고 확장시키는 열린 혁신플랫폼(an open innovation platform)증강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 (국제적 리더십) 국제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취할 것인지? 아울러, 운영위원회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은?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2021년은 OGP 출범 1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8개 국가로 시작한 OGP가 79개 회원국, 20개 지방정부, 수천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협의체로 성장해 온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10년의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을 운영위원회의 집단 지성과 혜안으로 공동 수립하고자 한다. 새로운 시도와 연대를 통해 OGP의 새로운 계기(momentum)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다.

열린 정부의 국제적 담론에 동참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UN, OECD, APEC 등 다양한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으로서 OECD 공공행정위원회(Public Governance Committee) 소속 열린정부 실무단(Working Party on Open Government)과 공공데이터 전문가그룹(Experts Group on Open Government Data)에 참여해 열린 정부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는데 참여하고 있다. OECD 등 OGP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OGP의 활동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릴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신남방정책을 추진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공공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시민사회 교류를 통한 민주적 가치와 혁신생태계 구성을 위한 집단지성과 사회경제적 실험과 경험을 증진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 'OGP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를 개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도전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열린 정부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연대를 구축해가고 있다. 그 노력에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OGP 참여 확대를 통해 선진국의 공공행정과 지속가능한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별 협의체를 구축하여 역내 공동 노력을 보다 세분화하여 정책 만족도와 효과성을 제고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자네트워크와 포럼을 플랫폼화하여 열린 정부를 위한 지속적인 도전과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각 회원국의 열린 정부 활동을 평가해온 독립보고메커니즘(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의 평가체계에 동료검토(peer review) 시스템을 적용하고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다양성, 엄밀성 등을 확보하고 하나의 큰 지적 토대를 구축하는 정보와 지식의 허브(information and knowledge hub)로 육성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 수혜국에서 원조국으로 성장한 유일한 국가이다. 오늘날 GDP 세계 12위, 국민소득 3만 불인 경제국가로 성장하기까지 다양한 경제 상황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아우르는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열린 정부 활동을 앞장서는 것으로 기여할 것이다.

3. (국내 활동) 국내 열린 정부 과제를 추진하고 모범사례를 제시하기 위한 계획은?

열린 정부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민주적 시민성을 기반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사회경제적 기업가 정신을 통한 정책문제 해결의 도전과제들을 경험적으로 관리해 나가며, 정책을 둘러싼 데이터, 정보, 지식, 경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책과정의 공공가치 공동창조가 구현되는 혁신생태계로의 진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열린 정부 가치를 확산시키고, 열린 정부를 구현하는 제도적 활동과 이와 관련된 민관 협력방안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다수이해관계자포럼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Open Government Forum Korea)'을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은 기존 OGP 활동의 경계를 확장시키고 있으며, 열린 정부 활동 분야에 대한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열린 정부를 위한 정책과제 수립과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이른바 쌍방향 대칭적 열린 정책플랫폼의 기능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이를 통해 정부는 시민의 눈높이, 시민의 일상에 최적화된 공공문제의 확인과 인식이 가능하고 시민의 목소리와 지혜를 통한 문제해결의 정책 인사이트를 활용하며 선순환 환류체계를 통한 열린 정부 정책 프로그램의 엄정한 평가와 진지한 성찰이 작동하는 정책 기제로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과 관련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2030세대의 정책 리터러시와 민감도를 강화시키고 공공문제 해결의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배양하는 시민교육의 틀로도 활용되고 있다.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은 2018-20년 이행중인 제4차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을 통해 민관협력 부패방지 체계 확립, 정책제안 플랫폼 '열린소통포럼' 운영,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등 13개 공약의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회문제를 집단지성과 시민참여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토론을 다음 국가실행계획의 야심찬 공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민관협의체 '정부혁신 추진협의회'와 국민으로 구성된 '정부혁신 국민포럼'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부기관의 참여와 열린 정부 활동을 내실화할 것이다.

4. (대외 협업) 의장국 활동을 이끌 주무부처는? OGP 가치와 OGP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대통령(실), 외교부, 타 기관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대한민국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2020-21 OGP 의장국 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2011년 OGP 출범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OGP 가입을 주도해 온 행정안전부는 네 차례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10월 운영위원회에 진출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운영위원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OGP가 한 차원 높은 의제로 격상될 수 있도록 청와대의 참여를 확보하고, 국제적인 열린 정부 플랫폼으로 활동하기 위해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기관과 협업할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의 정부위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서울특별시가 국내 열린 정부 활동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 안에서 지속 협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국제협력단(KOICA), KDI 한국개발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경험과 역량도 공유하겠다.

OGP 의장 활동을 이끌 주무부처이자 대한민국 정부혁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의 범정부적 혁신 노력을 OGP의 활동과 연계해 국내 열린 정부 활동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Ⅲ

(안건2) 워킹그룹 운영 현황

3. [안건2] 워킹그룹 운영 현황

□ 열린정부포럼 청년현장학교 워킹그룹 [행정개혁시민연합 발표]

○ 열린정부파트너십의 제4차 국가실행계획 모니터링과 제5차 국가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청년 워킹그룹 운영

- 2019 열린정부 실행계획 행정현장학교는 OGP 국가실행계획에 대한 실질적 모니터링을 위한 활동임
- 청년층의 정책제안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열린정부를 구현해나가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장 마련을 목표로 함
- 사전 교육과 다섯 차례의 현장학교를 통해 '대한민국 열린정부 네트워크' 청년 워킹그룹 구성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 진행상황

- 웹페이지(ogpccbgpa.creatorlink.net), 대학게시판, 리플렛, 포스터, 현장홍보(경희대, 이화여대, 서울여대 등), 행개련 소속 교수님 추천 등을 통해 **참여자 모집**(8.13 기준 9개조, 61명 구성)
- **위촉식, 1차 사전교육**(5.24(금), 가회동 주민센터 대강당, 50명 참석)

※ **교육 내용** : 사단법인 시민 운영위원장 이강준 '정책과정의 시민참여-시민이 만드는 정책', 사단법인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OGP와 시민참여-공공데이터 활용방안'

- **제1차 행정현장학교 관세행정 혁신의 현장**(6.7.(굼), 관세청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 제2컨테이너 검색센터, 갑문 홍보관, 30여명 참석)
- **2차 사전교육, 워크숍**('19. 7. 12.(금), 가회동 포레스트 구구, 40명 참석)

※ **교육 내용** : 알권리 연구소 전진한 소장 '정보공개를 통한 시민제안 방법', 사단법인 시민 이강준 운영위원장 '시민이 만드는 정책·공공데이터와 열린 정부'
워크숍 내용 : ①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OGP 활동', ②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참여', ③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민간위원 박지환 변호사 'OGP와 오픈데이타 운동', ④ 관세청 '관세혁신 사례', ⑤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민참여예산제와 시민참여', ⑥ 한국시설안전공단 '국민주도 공공혁신 프로그램: 키스텍 청년옴부즈만'

- **2018 국가실행계획 조별 모니터링 과제 선정** 완료, 11월까지 2020 국가실행계획 정책제안 과제 발굴 예정

조	모니터링 과제	담당부서
1	민간의견 수렴을 통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2	자발적 법규준수 기반의 관세행정 체제로의 전환	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3	정책실명제 강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4	참여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 국민포럼 운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전략추진단
5	국민 다소비·다빈도 식품별 유해물질(19종) 함유량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6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지원담당관
7	온·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 운영	행정안전부 국민참여정책과
8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9	민간 활동도 높은 고수요, 고가치 국가중점데이타 개방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타정책과

- **조별 멘토링**(8.19(월), 서울 NPO 지원센터 주다관)
- **제2차 행정현장학교** : 정부혁신의 현장 방문(8.23(금), 행정안전부, 열린소통포럼,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
- **제3차 행정현장학교** : 공공기관 혁신의 현장 방문(8.28(수), 한국시설안전공단)

○ 향후 일정

■ OGP 행정현장학교 향후 일정(예정)

- 위촉식, 1차 사전교육: 5월 24일(금) 3시, 가회동 주민센터 대강당
- 제1차 행정현장학교: 6월 7일(금), 관세청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 제2컨테이너 검색센터, 갑문홍보관
- 2차 사전교육, 워크숍: 7월 12일(금), 포레스트 구구(가회동)
- 조별 멘토링: 8월 19일(월), 서울 NPO 지원센터 주다관
- 제2차 행정현장학교: 8월 23일(금), 행정안전부 확정
- 제3차 행정현장학교: 8월 28일(수), 한국시설안전공단 확정
- 제4차 행정현장학교: 9월 중,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예정)
- 제5차 행정현장학교: 10월 중, 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예정)
- 평가회, 뉴스레터 발간: 12월 중

○ 행사 사진



사전교육·발대식(5. 24)



제1차 행정현장학교(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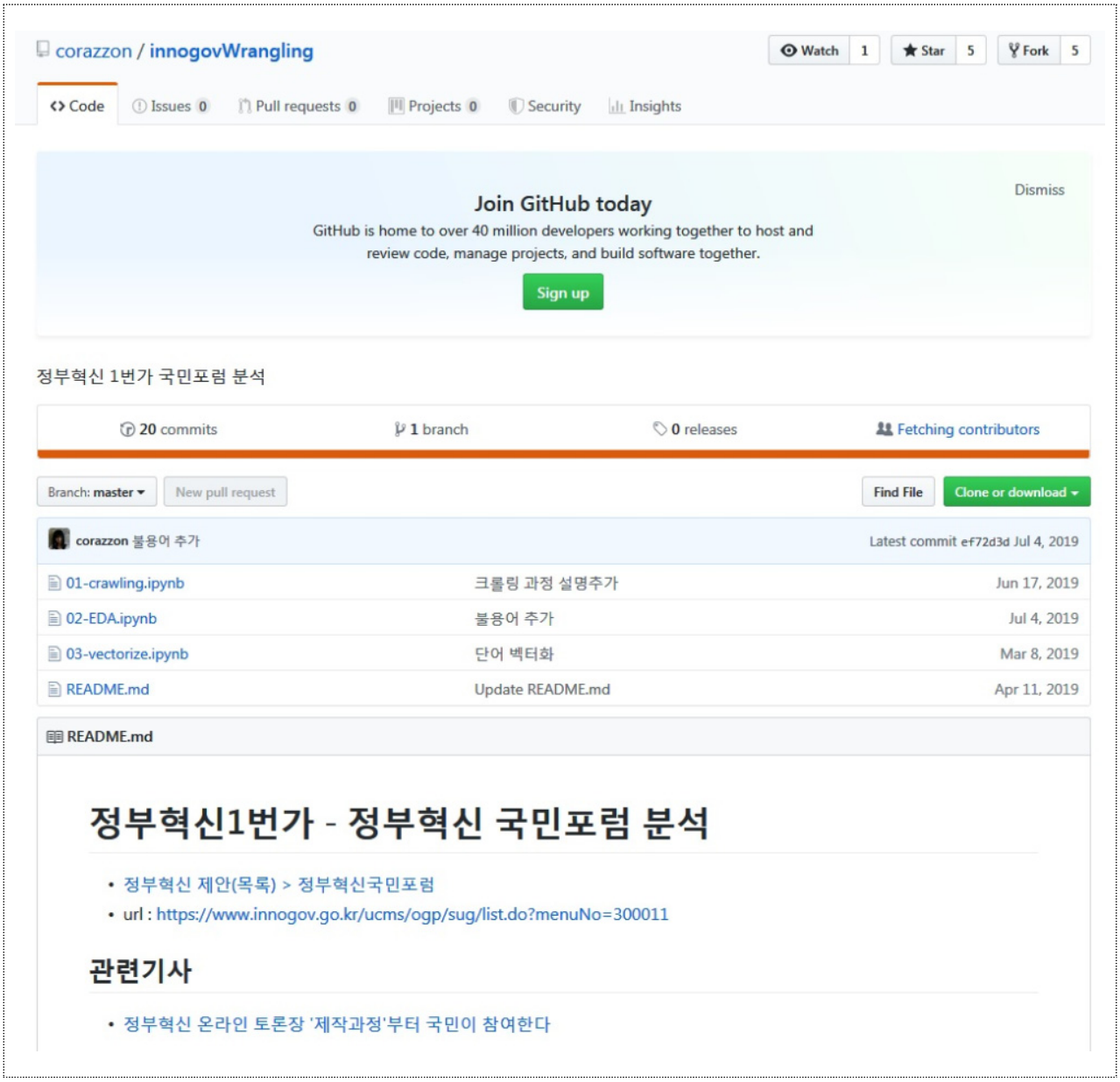


2차 사전교육·워크숍(7. 12)



2차 사전교육·워크숍(7. 12)

□ 정부혁신국민포럼 크라우드소싱 기획단 워킹그룹 [오픈넷 발표]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github.com/corazzon/innogovWrangling에서 확인 가능

Ⅳ

(안건3) OGP 글로벌서밋 참석 결과

4. [안건3] OGP 글로벌서밋 참석 결과

□ 개 요

○ (일시/장소) ’19. 5. 29.(수)~31.(금) / 캐나다 오타와

○ (주 최)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의장국 캐나다 재무위원회

○ (주 제) 포용(Inclusion), 참여(Participation), 성과(Impact)

○ (참 석) OGP 회원국 79개국 장관급 인사, 수천 개 시민사회단체 등 포함 약 100개국 2천 여명 참석

□ 주요 논의 내용

① OGP 운영위원회 회의

■ OGP 운영위원회 정부위원(11개국)

아시아·태평양(2)	미주(3)	유럽(4)	아프리카(2)
우리나라	캐나다(의장국)	프랑스(재선)	남아공
조지아	아르헨티나(부의장국)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멕시코	루마니아(재선)	
		크로아티아	

○ OGP 운영위원회는 ① 운영위원회의 리더십 활용 방법, ② 지방정부 참여를 위한 전략적 방향, ③ OGP 차기 의장단 비전, 3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함

○ 정부 운영위원은 OGP 의장단 비전인 ‘포용, 참여, 성과’와 관련 각 정부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정책을 공약으로 소개하고 OGP 운영위원회 행동지침을 승인함

■ OGP 운영위원회 행동지침(운영위원회 승인)

- (제목) 참여 보장, 포용 증진,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성과 창출 공동 추진
- (배경) 시민영역 축소, 국민의 신뢰 하락, 공동체의 양극화 등 민주주의 훼손
- (주요 내용)

1. OGP 다수이해관계자포럼을 통한 포용적인 공동창조 강화
2. 공동창조 과정에 여성 포용, 양성평등을 위한 공약 수립
3. 디지털 영역 내 민주주의적 참여 심화 및 온라인 피해 예방

- 우리정부는 정부 8개 부처 양성평등 전담부서 신설, 예산·법령 등 핵심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데이터 과학에 기반한 정책결정 지원 강화 등 분야별 정부혁신 과제를 발표함
- 포용 관련, 캐나다 정부는 성 평등을 위한 툴 GBA+(Gender Based Analysis Plus)를 소개하며 성·포용에 관한 데이터의 접근성을 또한 높이겠다고 설명함
- 참여 관련, 프랑스 정부는 정부와 시민사회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특정 분야를 논의하는 민관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겠다고 발표
- 성과 관련, 이탈리아 정부는 정부기관 협의 포털을 개설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픈소스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

○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OGP 내 지방정부 참여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담은 운영위원회 결의안을 채택함

- 1. 열린 정부 공약을 수립하기 위한 중앙-지방정부 전략적 협업
- 2. 기존의 OGP 지방정부 프로그램의 확대
- 3. 지식, 교육, 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OGP 사무총장 및 운영위원회 위원 전체사진

② 개회식

○ 캐나다 조이스 머레이(Joyce Murray) 재무위원장 겸 디지털부장관은 민주주의에 대한 디지털 위협을 우선과제로 대응하고 있으며, 공동 리더십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캐나다 민관협의체의 시민사회위원들이 등장해 수익소유권, 정보 접근성, 청년참여 등 열린 정부의 다양한 분야를 언급하며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산자이 프라드한 OGP 사무총장은 국제사회 내 열린 정부 구현 활동을 소개하며 대한민국의 광화문1번가를 우수사례로 언급함

○ 캐나다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모두가 연결(connected)되어 있지만 고립(isolated)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한 툴로 활용해야 한다고 발표

○ 이외에도 캐나다의 다문화, 포용국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성소수자 합창단의 국가 제창, 장애 안무가의 공연 등을 선보임

③ 장관급 패널 토론

■ **장관급 패널토론 개요**

- (제목) 고소득국가의 민주주의: 디지털 시대의 신뢰 회복
  Health of Democracy in High-Income Countries: Restoring Trust in the Digital Era
- (진행방법) ① 신뢰 증진을 위한 시민참여, ② 디지털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 두 세션으로 나누어 3명씩 발표 및 청중과의 대화
- (사회자) 열린국가재단 CEO Wilma Haan
- (발표자)
  1. 노르웨이 디지털부 사무총장 Paul Chaffey
  2.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
  3. 민주주의 활동가 Teele Pehk
  4. 마이크로소프트 캐나다 기술총괄자 John Weigelt
  5. Access Now 유럽정책 매니저 Fanny Hidvegi

○ ‘고소득국가의 민주주의: 디지털 시대의 신뢰 회복’ 제하 회의에서 국민 참여 기제로 ‘광화문1번가’ 소개

○ 노르웨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의 정부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 참여의 기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시민사회가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을 활용

○ 에스토니아에서는 지난 6년 간 매년 민주주의 페스티벌을 개최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갖고 있음

○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를 높이는 방법을 논의하고, 이와 더불어 디지털 격차로 인해 소외받는 국민을 포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④ 독일 디지털부 장관 양자회담

○ 독일정부가 한국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문의하여 우리정부는 민관 간 긴밀한 협력과 R&D 투자 확대, 경쟁국과의 기술 경쟁 등을 주요 요인으로 언급함

○ 독일의 ‘산업 4.0’ 추진 등 디지털 전략에 대한 우리정부의 질문에 독일 측은 IoT, 디지털 연결성 등을 디지털 전략의 기반으로 설명하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

○ 독일 현행법상 2022년까지 모든 정부서비스가 전자화될 예정으로 총 575개 공공서비스가 디지털화될 것으로 예측

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실장 양자회담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전자정부 도입에 한국정부가 큰 역할을 했으며, 향후 협력 관계를 계속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함

○ 아울러, ①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OGP 가입 권유를 통한 역내 열린 정부 구현 노력 확대, ② 전자정부 분야 내 경험 공유를 제안함

○ 중앙·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전자시스템에 대해 논의하며, 우리정부는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보여줄 수 있는 정부24 소개

○ 공공-민간 간 역량 차이에 대해 인적 교류, 민간에 데이터 공유, 민간이 개발한 서비스를 정부가 사용하는 등의 환류방법 논의

⑥ OGP 사무총장 양자회담

○ OGP 사무총장은 시민영역(civic space)에 대한 보호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데 한국의 경우 집회의 자유가 광범하게 허용되고 있어 타 국가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언급

- 우리정부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상 핵심 가치이며 온라인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 청원'과 '정부혁신 국민포럼' 등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

○ OGP가 2020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반부패국제회의(IACC)'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해온 것에 대해 우리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동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답변

○ 한국정부가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역할을 확대해주시기 바라며, 2020-21 차기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맡아줄 것을 요청('19.10월부터 부의장국 임기 시작)

※ 우리정부는 OGP가 출범한 '11년 가입하여 '17년 OGP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OGP 운영위원회에 진출하여 3년의 임기를 수행 중(-'20.9월, 1회 재선 가능)



독일 디지털부 장관 양자회담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실장 양자회담

alaysis

2019 OGP global summit 참관기(1)

2019년 5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OGP 글로벌서밋 참관기 1부입니다.



By *박지환* on Jan 13, 2019

OGP란?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은 열린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정책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국제 네트워크이다. 2010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계기로 투명성, 부패척결, 책임성 등을 기치로 2011년 출범하여 현재는 서울특별시 등 20개국의 자치정부 회원과 79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출범 당시부터 OGP 회원국으로 OGP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7년 하반기부터는 운영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OGP 활동을 펼치고 있다. 포럼에는 정부 각 부처 담당자외 사단법인 오픈넷 외 11개 민간위원이 참여 중이다. OGP는 열린정부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와 2년 주기의 국가실행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함께 논의하고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현재는 4차 국가실행계획 이행기간으로 내년에 새로운 국가실행계획 작성을 앞두고 있다.

2019 OGP 글로벌서밋 개요 및 첫 인상

OGP는 OGP 참여국가 등을 참가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서밋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글로벌 서밋 외에 지역별 회의도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데, 지난 2018년 말 대한민국 정부는 OGP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는 현 OGP 의장국인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에서 지난 5월 29일부터 3일간 제6차 글로벌 서밋이 개최되었다. 캐나다는 2019 OGP 글로벌 서밋의 주제를 "참여, 포용, 효용" (participation, inclusion and impact)을 주요 의제로 삼아 여러 워크샵과 사이드 이벤트를 기획하였다. OGP 글로벌 서밋은 참여국 회원들로부터 워크샵을 자유롭게 제안받아 채택하는 절차로 준비되며, OGP 본부와 개최국의 공동심사를 통해 최종 워크샵을 선정한다. 본 링크는 최종 선정된 워크샵 및 사이드 이벤트 목록이며, 원격참여로 진행된 워크샵과 사이드 이벤트는 유투브 영상으로 실시간 중계가 이루어졌고 현재도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개막식 주요 내용 소개 – 랩터스? 랩터스!



개막식의 시작은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와 진행자의 토크쇼로 시작되었다. OGP 글로벌 서밋은 전통적으로 개최 국가의 수장의 연설로 개막식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토크쇼 형태로 진행한 경우는 처음이어서 매우 신선했다. OGP 참여로 인한 주요 성과를 자랑하기 보다는 가짜뉴스 등 캐나다가 직면한 주요 현안, 그 중에도 주로 인터넷 이슈를 주로 다룬 점도 이채로웠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opengovkr.webflow.io/post/11에서 확인 가능

참고 1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개요

□ 설립 배경 및 목적

○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10.9월 UN 총회 연설 계기, 각국정부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위해 '11년 출범한 다자간 협력사업

○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각국 정부의 투명성 증진, 부패척결, 시민참여 활성화** 등 열린 정부 구현이 주 목적

※ 시민사회를 정책결정에 있어 정부와 동등한 주체로서 인식하는 차원에서, 기존 국제기구와는 달리 국가간 다자조약에 기반하지 않는 "파트너십"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

※ OGP 회원국은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자국의 공약을 담은 2년 주기의 국가실행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수립·이행

< OGP 추진 경과>

- '11.9.20. 유엔총회 계기 OGP 공식 출범식 개최
- '12.4월(브라질), '13.10월(영국), '15.10월(멕시코), '16.12월(프랑스) 글로벌서밋 개최
- '19. 4월 기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79개국 가입

□ 운영위원회

○ OGP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ee)는 OGP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11개국 정부 및 11개 국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

※ 운영위원국은 OGP 가입국의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재선 가능

○ OGP 활동 방향과 의제 설정, OGP에 대한 인적·재정적 관리 총괄, 의장국(캐나다, 아르헨티나) 선출 등

< OGP 운영위원회 정부위원('19.8월 기준) >

아시아·태평양(2)	미주(3)	유럽(4)	아프리카(2)
우리나라	캐나다(의장국)	프랑스(재선)	남아공
조지아	아르헨티나(부의장국)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멕시코	루마니아(재선)	
		크로아티아	

※ '18. 10월 신규의장단 1년 임기 시작(1년), 차년도 부의장국 → 의장국 승격

□ 국가실행계획

○ OGP 회원국은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자국의 공약을 담은 2년 주기의 국가실행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수립·이행

※ 우리나라는 4차에 걸쳐 국가실행계획 제출(제1차: '12.7월~'14.6월, 제2차: '14.7월~'16.6월, 제3차: '16.7월~'18.6월, 제4차: '18.9월~'20.8월)

○ OGP는 독립보고메커니즘(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이라는 소속 기구를 통해, 국가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 수준과 공약의 이행 수준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 발간

□ 재 정

○ 전 OGP 회원국은 소득수준에 따라 OGP에 대한 재정기여 의무 부담

○ 2년 연속 의무 불이행시, OGP 내에서의 투표권 중지, 운영위원국 재선 불가, 의장국 선거 출마 자격 상실 등 불이익 부과

※ OGP 출범 당시('11년) 재정기여는 모든 회원국의 의무는 아니었으나(주로 운영위원국에서 재정 부담), '14년 운영위원회 의결 및 그에 따른 규약 개정으로 전 회원국이 재정을 분담하는 것으로 변화

<OGP 규정(Articles of Governance) 중 재정기여 관련 내용>

All OGP participating governments are expected to make annual financial contributions to fund the Support Unit and IRM. As agreed by the OGP Steering Committee, a country's income level determines the level of the required contribution. The income level is derived from the World Bank's income classification. **(모든 회원국의 의무)**

Governments that for **two successive years have not made financial contributions** to OGP at or above the minimum amount for their income tier will not be eligible to run for a seat on the OGP Steering Committee or participate in any formal vote of OGP participants. **(2년 연속 미납시 불이익)**

참고 2 우리정부의 OGP 활동 현황

□ 개 요

○ 우리정부(주무부처: 행안부)는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2011년 출범 당시 가입하여 활동 중

○ OGP의 권고사항에 따라 ① 열린 정부 실행계획 수립·이행·점검, ② 국내 민관협의체 운영 중이며, 회원국의 재정 의무* 준수

* 세계은행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우리나라는 연 20만 달러 기여

□ 우리부 활동 현황

○ **(운영위원회 활동)** OGP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 진출('17. 3월), '17. 10월부터 3년 임기 수행(~'20.9월, 1회 재선 가능)

- 장관회의(1회), 실무회의(3회)를 연례 대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

* 장관회의는 글로벌서밋, UN총회 계기 부대행사 등 고위급 회의가 있을 시, 일정, 장소 등 유동적으로 개최 예) '17.9 UN총회 계기 미국, '18.7 글로벌서밋 계기 조지아 개최

○ (**제4차 국가실행계획 이행**)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실행계획 수립(이행 기간: 2018. 9.~2020. 8.)

- 우리부 포함 7개 기관*에서 참여하는 12개 열린 정부 공약 이행

* 국민권익위원회(공약 1개), 문화체육관광부(2), 행정안전부(4), 식품의약품안전처(1), 외교부(1), 문화재청(1), 관세청(1)

○ **(민관협의체 운영)** 국내 OGP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시민사회 간 정례협의체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운영

- 국가실행계획 공동 수립, 이행 점검, 평가보고서 검토·채택 등

- 전체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되, 국가실행계획 수립 기간(6개월) 동안에는 월 1회 소집

참고 3 포럼 운영 활성화 방안 (의결 완료)

□ 그간의 경과

○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GP[5])'의 권고사항에 따라 정부-시민사회 정례협의체 '대한민국OGP포럼' 출범('17.8월) 및 '제4차 국가실행계획' 공동 수립('18.8월)

□ 추진 배경

○ 범정부적 노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열린 정부 **활동 분야에 대한 외연 확장**과 **정책 수립을 위한 장기적 접근 필요**

□ 추진 방향

○ 열린 정부 가치를 확산하고, 열린 정부 활동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민관협의체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으로 구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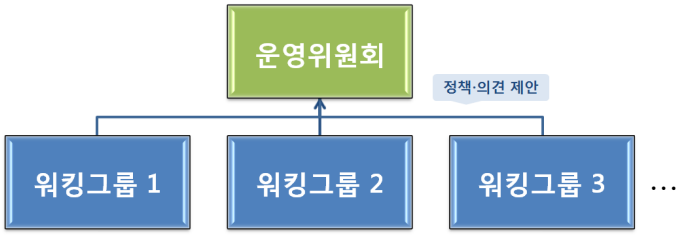
○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정부가 자문**하여 범정부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네트워크를 활용**해 성과를 홍보함으로써 타 협의체와 차별화

□ 주요 내용

구 분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구 성	• 정부 주도 구성 및 운영 • 국가실행계획 참여 기관 4개로 구성 (행안부, 국조실, 권익위, 정보화진흥원)	⇨	• 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는 지원하는 **민간 중심 열린 정부 혁신** • 열린 정부 활동 핵심부처로 정부위원 재구성
기 능	• 국가실행계획 수립·이행·평가		• 열린 정부 활동 전반에 걸친 민간의 의견, 정책**제안 발굴·심의·조정·지원** 원스톱 실행
과 정	• 정부가 주도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		• 민간에서 주도해 제안 등을 발굴하면 민관협의체가 자문 및 **제도적·재정적 지원**

5)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국제협의체로서 정부 투명성 제고, 부패척결, 시민참여 활성화,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ICT 활용을 가치로 설정하고, 정부와 시민사회와 함께 국가실행계획을 수립·이행·평가하도록 권고. 79개국 중앙정부, 20개 지방정부, 수천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며 우리정부는 11년 출범 당시 가입.

□ 구 성



< 포럼 운영 체계도 >

①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

- (정부위원) 정부 투명성 제고, 부패척결, 시민참여 활성화,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ICT 활용 등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예산·기술·반부패 기제 등 자문을 해줄 수 있는 7개 중앙·지자체·공공기관

- (민간위원) OGP 가치 연관성, OGP에 대한 이해도, 국가실행계획 분석력, 활동 분야 등 4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단체 공모 및 선정 ('17.8월 행안부장관 위촉위원으로 유지)

② 워킹그룹은 민간위원 중심으로 운영하고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 민간위원인 단체가 그룹의 장이 되고, 그룹별 목적과 취지에 맞는 시민사회·학회·국민이 자유롭게 참여

□ 역 할

① 운영위원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분기별 1회 회의 개최**

- 열린 정부 구현 방향 설정 및 주요 일정 발굴·확정

- 워킹그룹의 정책 제안에 관한 **자문 및 정책화 지원**

- OGP에 제출한 대한민국 국가실행계획의 **이행 점검 및 지원**

② 워킹그룹은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조직 역할 수행

- 정책 제안 발굴 및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 수시

- 국가실행계획 분야별 현장 점검 및 개선점 제시

□ 정책 제안 절차

① 정책 및 기타 국민 제안 발굴

- 주체 : 포럼 워킹그룹
- 내용 : ① 열린 정부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제안
  ② 열린 정부 관련 국민 참여 행사 등 프로그램 마련·실행
  ③ OGP 국가실행계획 이행상황 현장 점검 등
- 방식 : 워킹그룹 내 회의를 통해 제안 및 계획 도출 후 사무국에 제출

⇩

② 제안사항 취합 및 운영위 상정

- 주체 : 포럼 정부·민간간사, 워킹그룹
- 내용 : 워킹그룹이 제출한 실행계획 및 제안사항 등 취합·운영위 상정

⇩

시민사회 네트워크 사무국 ⇨ 지원

③ 운영위원회 개최 및 제안 심의

- 주체 : 포럼 운영위원회
- 내용 : ① 운영위 분기별 회의 개최
  ② 워킹그룹에서 제안된 정책·제도개선 및 일정 심의·의결
  ③ 예산 활용 관련사항 심의 의결
  ④ OGP 국가실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자문
  ※ 운영위원은 예산·제도·기술적 측면에서 전문적 자문 및 조정
- 방식 : 운영위원회 내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

⇩

④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공지

- 주체 :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담당팀, 시민사회 네트워크 사무국
- 내용 : 운영위가 의결한 정책제안 및 개선의견 해당기관에 전달하고 수용·불수용 및 기타 정부의견 접수 후 워킹그룹에 공지
- 방식 : 정부 기관 간 공문 형식으로 전달 및 의견 수령

참고 4 2019년 활동 계획

시 기	회의/행사명	내 용
2.14.(목)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2019년 제1차 정례회의(분기개최)	2019년 활동계획 확정, 운영규정 채택 등 열린 정부 활동과 관련한 협력방안 마련
3.11-17	열린 정부 주간 (OpenGov Week)	OGP 주도 글로벌 열린 정부 주간 행사
	열린 정부 워크숍(가제)	민간 주도 열린 정부 행사 개최 예) 전문가 초청 설명회, 워크숍 등
4월말	제2차 정례회의	현안 검토, 2/4분기 운영 계획 논의
5.29.~31.	OGP 글로벌서밋 및 OGP 운영위원회 장관회의 (캐나다 오타와)	OGP 의장국 캐나다 주최
8월중	제3차 정례회의	현안 검토, 3/4분기 운영 계획 논의
11월중	제4차 정례회의	현안 검토, 4/4분기 운영 계획 논의
하반기	열린 정부 결산 워크숍(가제)	민간 주도 열린 정부 행사 개최 예) 전문가 초청 설명회, 워크숍 등

□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정례회의

○ 운영위원회 분기별 정례회의 개최(4회)

○ 열린 정부 활동과 관련한 범정부적, 민관 협력 방안 마련

○ 워킹그룹 회의(수시)

□ 제4차 국가실행계획 이행 및 평가

○ 7개 기관이 이행하는 13개 열린 정부 공약 이행 및 점검

○ 국가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OGP 평가보고서 검토 및 의견제출

□ 열린정부 인식 제고 활동

○ '열린 정부 주간' 계기 국제적 열린 정부 구현 활동 동참

○ 국내 열린정부 인식 제고를 위한 워크숍 등 개최

참고 5 포럼 운영위원회 구성

구분	위원(기관·단체)명	관련 내용	참석자
정부위원 (7)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OGP 주무부처(총괄), 공공데이터 개방 등 투명성 제고, 국민 참여 활성화 정책 이행	윤종인 차관 (공동위원장)
			김성중 정부혁신기획관
			배일권 혁신기획과장 (정부간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를 활용한 거버넌스 증진	강도현 지능정보사회추진부단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방지를 통한 반부패 활동	임윤주 부패방지국장
	기획재정부	참여예산 등 국민 참여 활성화	백승주 재정혁신국장
	인사혁신처	열린 정부를 위한 공직 인사혁신 활성화	이정민 인사혁신국장
	서울특별시	서울 혁신업무 총괄 OGP 지방정부 프로그램 참여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
	한국정보화진흥원	OGP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 전문기관	문용식 원장
민간위원 (11)	사단법인 코드	오픈데이터 등 디지털 커먼즈 확산	윤종수 이사장 (공동위원장)
			오원석 이사
	사단법인 오픈넷	인터넷 표현의 자유,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증진	박지환 변호사 (민간간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국내 국제개발협력(ODA) 활동	조대식 사무총장
	알권리연구소	알권리 증진을 위한 여론 조성	전진한 대표
	정보화사회실천연합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	손영준 대표
	정의연대	부정부패 감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제공	양건모 이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시민역량 강화, 알권리 침해 대응	강성국 사무국장
	한국자치행정학회	지방행정 정책 개발	정상현 교수
	한국투명성기구	반부패, 투명성 활동	이상학 상임이사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 공정사회 조성 활동	박준우 사무처장
	행정개혁시민연합	정부개혁과제 모니터링, 민주시민교육사업	박수정 사무총장

참고 6 포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9. 4. 30. 제정)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4. 30.] [행정안전부 훈령 제83호, 2019. 4. 30, 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열린정부 가치를 확산하고,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또는 OGP) 활동을 함에 있어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럼의 설치 및 기능) ① 열린정부 가치를 확산하고, 열린정부 구현 활동과 관련한 민관 협력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포럼은 대한민국의 열린정부 구현 및 OGP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대한민국의 열린정부 가치 확산과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2.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대한민국의 열린정부파트너십 국가실행계획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열린정부 활동과 관련한 국민 참여 및 의견 수렴,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포럼은 운영위원회, 워킹그룹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2명, 간사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정부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 및 제3항제5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이 공동으로 된다.

④ 간사는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장 및 제3항제5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이 공동으로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되며, 각 호를 대표하는 사람이 활동한다.

1. 투명성 제고, 부패척결, 시민참여 활성화, 공공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ICT 활용(이하 열린정부 가치라 한다)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자
2. 대한민국의 열린정부파트너십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 전문 공공기관의 장
3. 열린정부 가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시민사회단체 또는 학회를 대표하는 자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포럼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포럼 운영규정의 제·개정과 위원장 및 간사 선출, 위촉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2. 워킹그룹의 설치 및 워킹그룹 별 소관업무 범위 관련 사항
3.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포럼의 기능에 관한 사항
4. 기타 포럼 운영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에 부치는 사항

⑦ 워킹그룹은 국가실행계획 점검 및 정책제안을 위해 위촉위원 중심으로 구성하되, 포럼의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자를 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운영위원회에서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촉위원의 해촉 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각자 포럼을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포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정부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정부혁신기획관 순으로 직무 대행
2. 민간 위원장은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 대행

제7조(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워킹그룹 회의에 관한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공동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사결정은 합의에 기반하며 쟁점사안은 만장일치 또는 과반수 투표 등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안건
3. 참석위원 명단
4. 주요 회의 내용

⑤ 위원장은 열린정부 정책과 관련한 국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포럼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조사·연구 의뢰) ① 위원장은 열린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포럼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럼 협의를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럼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럼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83호, 2019. 4 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7 OGP 사무총장 및 운영위원회 (2019년 회의 참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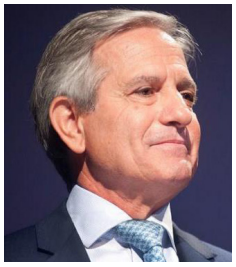
사무총장		
사진	성명/직위	주요 이력
	산자이 프라드한 (Sanjay Pradhan)	■ 2016.1월~ OGP 사무총장(CEO) ■ 2013년 세계은행(World Bank) 부총재 ■ 미국 하버드대 철학·경제학 석·박사 ※ 2017.8월, 행정안전부장관 면담, 2018.11월, OGP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참석차 방한
정부위원(11)		
사진	성명/직위	주요 이력
	조이스 머레이 (Joyce Murray) 정부 의장	■ 캐나다 재무위원회 위원장 ■ 캐나다 디지털부 장관 ■ OGP 운영위원회 의장
	안드레스 오라시오 이바라 (Andres Horacio Ibarra) 정부 부의장	■ 아르헨티나 현대화사무처 차장 ■ OGP 운영위원회 부의장
	진영 장관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장관 ■ 前 보건복지부 장관
-	헬레나 베우스 (Helena Beus)	■ 크로아티아 비영리단체협력기관장
	헨리 베르디에르 (Henri Verdier)	■ 프랑스 디지털부 대사 ■ 前 프랑스 국가선임기술담당관

사진	성명/직위	주요 이력
	니노 사리슈빌 (Nino Sarishvil)	■ 조지아 행정부 차관
	마르코 데 기오르기 (Marco de Giorgi)	■ 이탈리아 공공행정부 국장
	타니아 델 라 파즈 페레즈 파르까 (Tania de la Paz Perez Farca)	■ 멕시코 공공조달행정사무처 차장
	아디오 바지리 오니비요 (Adio Waziri Onibiyo)	■ 나이지리아 채굴투명성기관장
	아나 비르칼 (Ana Birchall)	■ 루마니아 전략협력부 총리
	퀴니실 델와 (Qinisile Delwa)	■ 남아프리카 공공서비스혁신센터장

시민사회위원(11)		
사진	성명/직위	주요 이력
	나타니엘 헬러 (Nathaniel Heller) 시민사회 의장	■ Results for Development 부총재 ■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시민사회 의장 ■ 前 비영리법인 Global Integrity 설립자
	로빈 호데스 (Robin Hodess) 시민사회 부의장	■ The B Team 거버넌스투명성부장 ■ 前 국제투명성기구 거버넌스 담당 ■ 前 카네기 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 근무
	마리아 바론 (Maria Baron)	■ 아르헨티나 Directorio Legislativo 이사
	헬렌 다비셔 (Helen Darbishire)	■ Access Info Europe 이사 ■ 前 Article 19 관리자 ■ 前 열린사회연구소 프로젝트 관리자
	에이든 이야쿠즈 (Aidan Eyakuze)	■ Twaweza 동아프리카 이사 ■ 前 국제개발사회 탄자니아 대표, 지역부대표
	딜리아 페레이라 루비오 (Delia Ferreira Rubio)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대표

사진	성명/직위	주요 이력
	수니타 카이말 (Suneeta Kaimal)	■ 자연자원관리연구소 최고운영자 ■ 국제비영리법센터 이사
	기오르기 클디아쉬빌리 (Giorgi Kldiashvili)	■ 조지아 정보자유개발연구소 설립위원 겸 사무국장
	투오로드 르카그바하브 (Tur-Od Lkhagvajav)	■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운영위원 ■ 前 몽골 공공감시위원회 의장
	루시 멕테르넌 (Lucy McTernan)	■ 스코틀랜드 열린정부포럼 시민사회의장 ■ 前 스코틀랜드 자발적기구위원회 최고운영자
	수자나 윙크 (Zuzana Wienk)	■ 슬로바키아 공정행동연합 대표

memo

memo

memo

memo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민관협의체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2019년 제3차 회의 자료

행정안전부